

고통과 마주할 자격



서 선 미 역
기후에세이

“중중 영화가 타인의 고통, 또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져와 영화를 소비하는 경우가 있다.”

베네치아국제영화제에서 〈가능한 사랑〉으로 심사위원대상을 받은 이창동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말은 이어진다. “과연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작품이 품고 있는 타인의 고통을 감독인 자신마저 소비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스스로의 태도를 끊임없이 복기하려는 엄정함이다.

감독의 이러한 질문은 전작에서도 있었다. 영화 〈시〉에서 그는 관객에게 타인의 고통이 나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청신한 강물에 몸을 던진 어느 소녀의 죽음은 겉으로는 노년의 여인 미자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늙은 여인 미자와 소녀는 너무도 긴밀하게 이어져 있다. 미자의 손자가 소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무리의 한 명이었기 때문이다. 해맑아 보이는 손자가 자초한 굴레

앞에서 미자는 더 이상 그 죽음의 바깥에 있을 수 없었다. 강으로 향하는 미자의 마지막 걸음과 그가 남긴 시는 소녀의 고통에 바치는 윤리적인 응답이다.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제 몸에 직접 새기겠다는 감독의 완강한 결단으로도 읽혔다.

타인의 고통이 손쉽게 전시되고 구경되는 사회다. SNS를 통한 새로운 소식의 실시간 전달은 타인의 비극을 그저 지나치는 거리의 전광판처럼 보게끔 한다. 고통에 오래 머물러 깊이 공감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은 채, 또 다른 고통을 담은 뉴스가 쉴 새 없이 도달한다.

불과 수년 전, 8월 8일 폭우가 내리던 밤 서울 관악의 한 빌라 반지하방이 물에 잠겼다. 그곳에 살던 일가족이 고립되어 숨졌다. 지상으로 향하는 창문은 있었지만 탈출구가 되지 못했다. 누군가는 그 참혹한 고통이 담긴 현장 사진을 자신의 홍보물로 삼았다. 고통이 잔인하게 소비되는 순간이었다. 고통의 소비가 무엇인지 섣뜻 이해하지 못했던 이들에게도 그 한 장의 사진은 고통이 어떻게 전시되고 이용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고통의 시간은 어느 한 사람만의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연루된 누구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모두의 시간이다.

알랭 드 보통은 저서 〈뉴스의 시대〉에서 뉴스가 재난을 다루는 방식을 설명하며 이렇

게 적었다. “우리는 우리 종의 다른 구성원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생각보다 더 깊이 연루되어 있다.”

알랭 드 보통의 말대로 우리는 깊이 연루되어 있다. 소녀와 연루된 영화 〈시〉의 주인공 미자의 윤리적 맺음은 고통을 소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통을 나누고 치유하는 미자라는 존재의 방식이었다. 이 글을 쓰면서도 나는 묻는다. 고통을 나누고 치유할 나만의 방식을 찾지 못한 나는 고통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인간이라는 결점투성이 종의 하나인 내가 그 자격을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이라도 얻기 위해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영화 〈시〉에서 미자가 남긴 시의 제목은 ‘아네스의 노래’다. 낭독은 미자의 목소리에서 시작해 소녀의 목소리로 끝을 맺는다. 아네스는 미자가 아닌 죽은 소녀의 세례명이었다.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일이란 고통을 가감 없이 정면으로 마주하는 동시에, 내 목소리를 낮추는 일이다. 내 목소리가 잦아져 저물 때, 비로소 고통의 정점에 서 있던 그이의 목소리로 건너가게 된다. 그래서 연루된 우리 모두의 목소리로 시작하는 노래가 끝내는 누군가의 고통의 자리에 따스한 빛의 동심원이 되어 번져 가기를 꿈꾼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정책전문위원

전기차 보조금의 동지, 무엇을 키우려 하나



기지 수첩
이 승 혁
(산업부)

작은 뱀새가 제 몸보다 큰 빠꾸기 새끼에게 먹이를 나른다. 동지에 물레 놓인 알에서 먼저 깨어난 빠꾸기는 뱀새 알을 밖으로 밀어냈다. 뱀새는 남의 새끼를 키우느라 분주하다. 부지런히 먹이를 나르는 것과 제 동지를 지키는 것은 다른 일이다.

테슬라 모델Y는 톰바디 모델 등을 합쳐 지난 8월에만 9638대가 팔렸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6397대가 판매된 기아차 소렌토를 제치고 한국에서 승용차 판매 1위를 차지했다. 소비자의 선택을 타할 일은 아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지원이 국내 산업 기반까지 뒷받침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따

라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정부안에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이 포함됐지만 전기차 완성차는 빠졌다. 구매보조금과 혜택이 겹치고 배터리 지원이 전기차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구매보조금은 테슬라 등 수입차 구매자도 받는다. 반면 생산세액공제는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도록 유도한다. 전기차에 이미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제도의 역할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두 제도의 역할이 다른 만큼 지원이 겹친다는 설명만으로는 전기차 완성차를 제외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 관건은 구매보조금과 배터리 지원만으로도 완성차 공장과 협력업체의 생산·고용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다. 보급 대수가 늘었다는 성적표만으로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수입 전기차도 내연기관차를 대체한다면 전기차 보급 정책의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급 정책과 산업정책을 구분해야 한다.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겠다는 생산량과 투자, 부품업체의 일감을 별도로 살펴야 한다.

생산세액공제의 효과는 설계에 달렸다. 세 부담을 덜어줘도 차값 인하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고 통상 미찰 가능성도 따져야 한다. 기업의 추가 투자와 생산·고용 성과를 확인할 조건을 붙여 지원이 국내 산업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보급 목표와 국내에 남길 생산 기반을 분명히 하고, 그에 맞춰 세액공제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전기차가 잘 팔리는 나라와 전기차를 잘 만드는 나라는 다르다. 보급의 성과를 산업의 경쟁력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sh95@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9일 (음 8월 19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취

48년생 거듭 실패가 계속됩니다. 60년생 매사가 안절부절입니다. 72년생 과로를 피하고 잠시 휴양을 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84년생 뒷사람에게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소

49년생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61년생 고삐를 늦추지 말고 전진해야 합니다. 73년생 내실을 충실히 기하는데 만전을 하세요. 85년생 외국으로 나가는 여행은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호랑이

50년생 불필요한 고집은 자제하세요. 62년생 부부사이에 언쟁을 높이는 일이 있겠습니다. 74년생 겉만 좋고 실속은 없으니 신중하게 대처하세요. 86년생 유혹이 심하게 다가옵니다.



토끼

51년생 재는 크고 이롭고 관은 성공합니다. 63년생 한해 중 가장 운이 좋은 날입니다. 75년생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야 합니다. 87년생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나가니 사람들이 따릅니다.



염

52년생 실패를 보게 되는 운이 있습니다. 64년생 현재에 만족한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76년생 바라던 바를 이루지 못하니 심기가 불편합니다. 88년생 마음의 병이 나를 괴롭히는군요.



뱀

53년생 자기의 의지대로 밀고 나가지 못합니다. 65년생 가정에는 기쁜 일이 생겨 행복할 일입니다. 77년생 모든 운이 갑니다. 89년생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

54년생 심장과 소화기에 병이 들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66년생 마음의 안정이 중요합니다. 78년생 매매가 이뤄지나 큰 이익은 없습니다. 90년생 지나친 신경은 건강을 해칩니다.



양

55년생 전화위복을 실감하는 하루입니다. 67년생 돈과 시간만 낭비합니다. 79년생 건강에 유의하고 체력관리에 힘을 쓰세요. 91년생 소망이 너무 원대하니 조금 낮춰서 생각해보세요.



원숭이

56년생 세상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68년생 준비된 자만이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80년생 집안이 화평하니 마음이 편합니다. 92년생 물가에 가려거든 조금만 미루세요.



닭

57년생 때를 만났으니 성공하게 됩니다. 69년생 어려움을 잘 참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81년생 다툼을 하려거든 참고 다음으로 미루세요. 93년생 모든 일이 술술 풀립니다.



개

58년생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70년생 주책장기를 조심하세요. 82년생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해집니다. 94년생 유흥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돼지

59년생 분주하나 소득이 없습니다. 71년생 티끌 모아 태산이 될 수 있는 하루입니다. 83년생 결과가 연연하면 실력발휘가 안됩니다. 95년생 과감한 변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김상회의四季 범죄의 개념

범죄라는 말을 들으면 움찔하게 된다. 곧이어 어둡고 무서운 장면이 생 각난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 다른 사람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폭행,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살인 같은 행위들이 대표적이기 때문이다. 뉴스에서 이상한 사건을 보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보면 범죄라고 말한다. 저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나쁜 짓은 모두 범죄인 걸까? 누군가를 욕하거나 약속을 어기는 것도 나쁜 짓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행동도 모두 범죄가 되는 걸까? 법을 기준으로 하면 범죄의 개념은 명확하다. 나쁜 짓이 모두 범죄는 아니다. 또한, 나쁜 짓으로 보이지 않는 행위가 범죄가 될 수도 있다. 범죄인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것은 행법에서 말하는 범죄의 개념이 기준이다.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는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 사람들도 많이 들어본 말 중에 죄형법정주의가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그 형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형법의 대원칙이다. 즉 법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했을 때만 범죄가 된다는 의미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화나게 했어도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 법에서 처벌 대상이라고 정해 놓은 행위인가 아닌가에 따라 범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법이라고 하면 흔히 상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잘못된 행위를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법은 개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하므로 명확한 법의 기준을 통과한 행위만을 범죄로 지정한 다. 법은 그중에서 최소한의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강제로 지키게 하는 기준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03호	
일간 메트로경제 <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07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작 기획전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 �도쿠

결합형 �도쿠 11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 및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8	9	2	1	7	4	5	8
9	2	1	7	6	9	8	1	2
2	8	1	9	2	8	9	7	6
8	2	1	8	7	6	9	1	7
1	9	6	8	9	2	1	7	8
7	9	8	1	2	9	8	6	2
8	1	8	7	6	9	2	1	9
9	7	2	8	1	6	8	9	5
2	6	9	9	8	2	8	1	7